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22-23)

〈성령강림〉, 지거 괴더 신부, 유화, 독일

[제1독서]사도 2,1-11

[화답송] 시편 104(103),1ㄱ-ㄴ과 24ㄱ-ㄴ,29ㄴ-ㄷ-30,31과 34
(©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감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제2독서] 1코린 12,3ㄷ-7,12-13

[부속가]〈성령송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돋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루소서.
덕행공로	살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요한 20,19-23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묵상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은

용서하는 권한은
용서해야 하는 책임을

영원한 사랑은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적인 평화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외로움을

당신의 선물은
우리가 기꺼이 그러하기를 초대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22-23)



(임의준 신부 / 가톨릭 신문)

복음 묵상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계속해서 일깨우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을 위하여 닫힌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용서’의 삶으로 우리 신앙인을 초대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서로의 다름에 적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사도들 위로 내려오실 때, 사도들의 말씀을 저마다 자기 고장 말로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사도 2장 참조). 하나이되 서로의 다름이 존중받는 곳을 성령께서는 즐겨 함께하십니다. 단절과 반목의 자리, 굳이 다름을 같음으로 여겨야만 하는 곳에서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며 아파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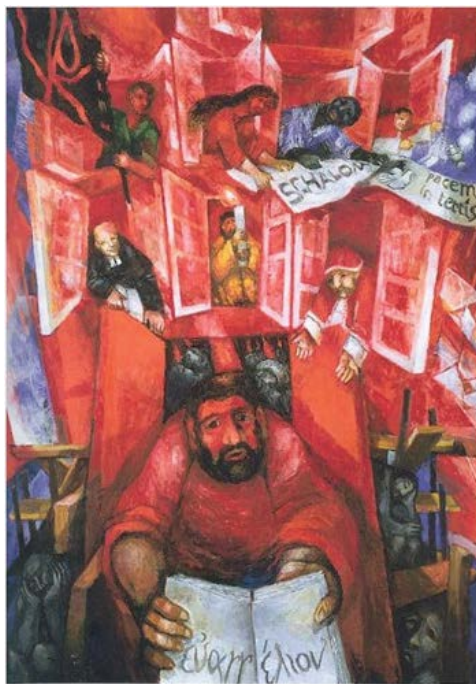
성령을 받아 누리는 이들은 서로의 다름은 다름으로 놓아둔 채, 서로의 고유성을 감상하고 그 고유성을 찬미하는 데 열심입니다. 세상에 사는 누구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존중받고 찬미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일이 성령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성령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늘 새로운 다름을 향한 설레는 탐험의 여정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삶을 느끼고 체험하며 다채로운 세상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는 일입니다.

오월의 마지막 날, 누군가에게는 잔인할 만큼 아름다운 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온 세상을 꺼안는 벅찬 감동의 시간을 기념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삶에 함께해 주셔서 ….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세상과 이웃을 향해 열려 있는 삶을 ...”

화가 신부인 지저 콰더는 작품 <성령강림>을 통하여 성령강림 사건(사도 2, 1~13 참조)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역동적이며 현실적으로 그렸다. 불길처럼 타오르는 성령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축하하며 닫혀진 창문과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단 좌측의 청년은 부활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PX)의 깃발을 흔들고 있다. 그 옆에는 여성과 흑인이 「평화, 땅에는 평화」라는 글과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그려진 현수막을 흔들고 있다. 그들 옆에는 사제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분향하고 있다.



<성령강림>, 지저 콰더

중앙 계단의 좌측에는 개신교의 목사, 가운데는 동방교회의 사제, 그리고 우측에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서 교회의 문을 활짝 열었던 교황 요한 23세가 있다. 그는 양손을 벌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모습을 하고 있다.

하단 가운데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오고 있는 장면이다. 그러나 그의

좌우에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채 자기 자신에 갇혀 고뇌하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며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 세상에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의 지구촌인 같은 집에 살고 있다.

지저 콰더는 <성령강림>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먼저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세상과 이웃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성령을 받아 시작된 교회는 부활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 땅에 평화를 꽃피워야 한다. 아울러 같은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분열되어 있는

지상의 교회는 먼저 일치를 위해 노력하며 서로 손을 잡고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또한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그들이 구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런 삶을 가꿀 때 우리는 참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용모 신부, 가톨릭신문>

성령 강림 대축일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Pentecost는 50일째 날을 뜻한다. 구약성서에서 이 단어는 오순절(五旬節) 축제로 알려졌다. 히브리인들은 과월절 첫날에서 일곱 주간(7x7=49)이 지난 시반 달(지금의 5월) 6일에 이 축제를 지냈기 때문이다(신명 16,9-13). 이 축제는 추수절 또는 맥추절로도 알려져 있었다. 유대인들은 이날 시나이 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실을 되새기기도 하였다.

신약성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이 완성되었음을 경축하였다. 이날 교회가 탄생하였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성령의 은총으로 굳건해지고 용감해져 스스로 복음을 살고 선포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으로 가득 찼다. 그들에게는 이 축일이 새 법을 선포하는 기념일이기도 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이 사백 주일을 가리킨 때도 있었다. 최근 달력이 나오기 전에는 팔일 축제 내에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냈다. 예수 부활 대축일 때 세례성사를 받을 준비가 덜 된 후보자들은 성령 강림 대축일 전야 때 세례를 받았다. <가톨릭 전례사전>



“기도는 악을 막는 방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교리 교육은 의로운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 살펴봅시다.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악의 존재를 경험**합니다. 일상적인 경험입니다. 창세기의 처음 장들은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점진적인 죄의 확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질투의 신과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너그러운 의도를 의심합니다(창세 3,1-7 참조). 여기서 반란이 생깁니다. 곧, 그들은 그들의 행복을 바라시는 관대하신 창조주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악한 자의 유혹**에 굴복하면서 절대적인 권능을 취하려는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5장 참조). 이것이 유혹입니다. 마음속에 생기는 야망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험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 아무것도 없이 알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7절 참조).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유혹자는 좋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자입니다. 나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악은 다음 세대와 함께 더욱 파괴적이고 강력해집니다. 바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창세 4,1-16 참조). 카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합니다. 질투의 벌레가 있었습니다. 카인은 자신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자신의 장자권을 넘보는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악이 얼굴을 내밀니다. 카인은 이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악이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나쁘게 바라봅니다. 이러한 일이 생각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에게 해를 끼칠 거야.” 이러한 생각은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 이처럼 첫

번째 형제애 이야기는 살인으로 끝납니다. 저는 오늘 인간의 형제애를 생각합니다. (...) 온 세상이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카인의 자손들은 공예와 예술을 발전시키지만, 복수의 찬가처럼 울려 퍼지는 라멕의 재앙의 노래에서 드러난 폭력도 발전시킵니다. “나는 내 상처 하나에 사람 하나를, 내 생채기 하나에 아이 하나를 죽였다. 카인을 해친 자가 일곱 갑절로 양값음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친 자는 일흔일곱 갑절로 양값음을 받는다”(창세 4,23-24). 복수입니다. “당신이 행한 것에 대가를 치를 것이다.” (복수는) 판사가 이렇게 저렇게 판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은 모든 상황을 통제할 때까지 기름얼룩처럼 퍼져 나갑니다. “주님께서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창세 6,5). 전 세계적 홍수(6-7장 참조)와 바벨탑(11장 참조)의 장엄한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새로운 창조와 같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처음 장들에는 또 다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덜 띄고, 훨씬 더 겸손하고 신심적이며, 희망의 구속을 나타내는 기록**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증오와 정복을 인간사의 큰 동력으로 삼고, 잔인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인간의 운명을 다른 방법으로 써 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벨은 만배를 주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이 죽은 후 아담과 하와는 세 번째 아들인 셋을 낳았습니다. 셋은 에노스(‘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낳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기 시작했다”(창세 4,26)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하느님과 함께 살았으며”, 하느님께서 데려가신 에녹이 등장합니다(창세 5,22.24 참조). 아울러 의롭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던”(창세 6,9)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노아를 보시고 인류를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는 생각을 철회하십니다(창세 6,7-8 참조).

이러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기도란 세상에서 자라나는 악의 홍수를 막는 인간을 위한 방패이자 피난처**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구원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제발 제 자신과 저의 야망들과 저의 욕망들에서 저를 구하소서.”** 성경의 처음 장들에서 볼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진정한 기도는 폭력적인 본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향한 눈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람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 돌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종교의 수많은 의인들이 이 같은 기도를 구현하였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569항). **기도는 인간의 증오가 사막만 넓혀갈 수 있는 곳에서 ‘새로 태어남’의 화단을 가꿉니다. 기도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느님의 권능, 곧 항상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권능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하느님이십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주권이 세상에서 종종 오해를 받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관통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로 끌어내는 하느님 권능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성장합니다. 이러한 관계망은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정부의 중요한 일을 맡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마음속에 종교적 감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것이 그분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자 그 기억이 다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기도하셨었지. (...)”** 그분은 할머니가 사용했던 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기도는 항상 생명의 연결고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생명의 씨앗을 뿌립니다. 작은 기도라는 씨앗 말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십자성호를 긋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십자성호를 잘 그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성호를 긋는 것은 첫 번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들은 (나중에 자라면서)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시절에 배운 첫 번째 기도는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기도는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의 대화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여정은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 흘러갑니다. 하느님의 여정은 인류의 “나머지”를 거쳐갑니다. 그들은 가장 강한 이들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느님께 당신의 기적을 행하시길 청하고, 특히 돌과 같은 인간의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길 청원하는 이들입니다(예제 36,26 참조).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면서, 하느님을 향한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커다란 인류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류애를 통해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본당에서 지켜야할 수칙

•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 기침이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신자,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및 고령자, 임산부, 만성질환자, 어린이, 최근 2주 이내에 해외나 타주에 다녀온 신자는 집에서 **방송미사, 목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의무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 입장시 준수 사항 •

- ▶ 모든 교우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성당 정문으로 입장 후 체온을 측정해야 합니다. (**99.5도 이상 입장 불가**)
- ▶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합니다.(봉사자가 세정제를 뿌려 줍니다.)
- ▶ 타 본당 신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성당 안에서 미사 거행 시 준수 사항 •

- ▶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6ft 간격**으로 표시된 좌석에 앞자리부터 차례로 앉습니다.
- ▶ 신자들은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성체를 모실 때만 잠깐 벗습니다.)
- ▶ 성경과 성가집, 기도문 등은 공용이 아닌 **개인**의 것만 사용합니다.
- ▶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하고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 합니다.
- ▶ 봉헌이나 영성체 시에도 **일정한 개인 간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 평화의 인사를 할 때는 손을 잡지 않고 가벼운 목례로 대신합니다. (**미사 중 신체적 접촉을 피합니다.**)
- ▶ 영성체 전에 사제가 미리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하면 신자들은 '아멘' 이라고 응답합니다. (**영성체 시에는 마음속으로 '아멘'을 합니다.**)
- ▶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마스크를 썼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서 합니다.
- ▶ 미사가 끝나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질서 있게 **즉시 성당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다음 미사를 위한 방역과 환기를 위해서 입니다.)
- ▶ 성당 내외 모든 장소에서 일정한 간격 유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예방을 위한 본당의 수칙을 철저히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미사 재개에 대한 안내

- 성 정 바오로 성당은 교구의 지침과 주 정부와 카운티의 행정 지침을 기준으로 모든 신자들이 안전하게 미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공동체 미사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신자분들께서는 사랑과 인내심을 갖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안정세를 보이면 그때 다시 미사 재개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체 미사가 재개되어도 미사에 참여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본당에서 지켜야 할 수칙'**을 미리 잘 숙지하시고, 미사가 재개되었을 때 철저히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알링톤 교구 사제 서품식 (Ordination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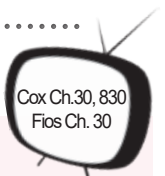
- 마이클 버빗지 주교님께서 2020년 6월에 5명의 사제와 5명의 부제가 서품을 받게 되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교구 사제서품식은 예정대로 6월 6일(토)에 토마스 모어 주교좌 성당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일반 교우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라이브 스트림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분의 새 신부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v. Mr. **Guillermo González** (St. Leo)
- Rev. Mr. **Peter McShurley** (St. John the Baptist)
- Rev. Mr. **Joe Moschetto** (Our Lady of Hope)
- Rev. Mr. **Charles Pavlick** (St. John the Beloved)
- Rev. Mr. **James Waalkes** (St. Raymond of Penafort)

본당 웹사이트 전면 개편

-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본당 웹사이트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 6월 4일(목) 오후 5:00-6:00
- 6월 5일(금) 저녁 8:00-9:00
- 6월 7일(일) 오전 6:00-7:00

•특집:
김수환 추기경 다큐멘터리 (2)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 6월 3일(수) 오전 6:15-6:45 | 6월 6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윤원진 신부님의 강의 '위대한 성인'** (10편)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소아전문 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현훈 (마르코) 센터빌, 챌린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커머셜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태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원 통증 · 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틴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형법, 개인상해, 파산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1955년생 메디케어 무료상담 및 신청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클로이 양 부동산 Giant Realty Inc. 다운사이징 / First time home buyer 양윤정(카타리나) 703-865-1026	GCOOP 케어셀라 천연 고기능성 화장품 맑고 투명한 물광피부 약속 김은희(글라리아) 703-732-3836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봄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성령 강림 대축일(청소년 주일)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